

성인기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가 고독에 미치는 영향

이 윤 영¹⁾

충남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이 연구는 성인초기와 중기의 성인을 대상으로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 및 고독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고, 고독은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 중 어느 변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지를 확인하였다. 형제자매관계 척도와 친구관계 척도 및 고독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하고, 성인초기의 사람들이 성인중기의 사람들보다 더 갈등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갈등적인 친구관계를 경험하고, 성인초기의 사람들이 성인중기의 사람들보다 더 온정적이고도 갈등적인 친구관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초기와 성인중기의 남성과 여성이 경험하는 형제자매관계 온정은 고독의 모든 차원들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형제자매 갈등의 양상은 성인초기와 성인중기의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달랐다. 또한 친구관계 온정은 고독의 모든 차원들과 부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친구관계 갈등의 양상 역시 성인초기와 성인중기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달랐다. 고독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는 사회적 고독은 형제자매관계보다는 친구관계의 영향력을 더 크게 받고, 낭만적 고독은 여성의 경우 친구관계의 영향력이 형제자매관계의 영향력보다 더 크며, 가족고독의 경우 성인초기의 사람들은 형제자매관계의 영향력이 친구관계의 영향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형제자매관계, 친구관계, 온정, 갈등, 고독

1) 교신저자 : 충남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과정 수료 (E-mail : leeu86@hanmail.net)

I. 서론

고독은 기존의 관계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해 느끼는 부정적인 경험(Gierveld & Havens, 2004)이나 다른 사람과 원하는 수준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때 생기는 불유쾌한 정서반응(Russell, Peplau, & Cutrona, 1980)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는 현재의 관계가 바람직하거나 허용되어진 관계보다 적을 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Gierveld, 1987)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많은 연구들은 상황과 원인에 관계없이 고독스러운 경험의 단일차원적인 구성개념으로 고독을 측정하였다(Shaver & Brennan, 1991). 그러나 Weiss(1973, 1998)는 사회적 고독과 정서적 고독으로 고독의 상황과 원인을 구분하였다. 사회적 고독은 지지적인 사회적 연결망의 부재나 붕괴시에 나타나는 무목적적인 감정이나 지루함 또는 거부당하는 느낌이라 하였으며, 정서적 고독은 가깝고 친밀한 정서적 애착이 존재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쓸쓸함이나 불안 또는 불안정감의 느낌이라 하였다. Cramer와 Barry(1999)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고독을 부정적인 정서, 사회적 고독, 정서적 고독 그리고 가족고독으로 나누었다. 한편 DiTommaso와 Spinner(1993)는 성인기로 이행하는 청년과 최근에 사별한 미망인 그리고 신혼 부부들의 가족과 친구에 대한 경험은 질적으로 다르므로 정서적 고독을 낭만적 고독과 가족 고독으로 구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Pinquart와 Sorenson(2001)에 의하면 고독은 사회적 접촉의 빈도, 사회적 연결망의 전반적인 크기, 정서적 지지를 받는 사람들의 수 등

의 변인보다는 사회적 연결망의 질과 더 강한 상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친구관계의 질 또한 친구 수보다 개인적 적응을 나타내었다(Hartup & Stevens, 1997). Rubin, Bukowski와 Parker(1998)도 아동기의 사회적 기술과 대인관계의 부족을 고독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Updegraff와 Obeidallah(1999)는 형제자매관계 역시 상호적 관계경험을 통하여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촉진시키며, 또한 가족과 분리되어 독립하려고 노력하는 청년기에 친밀성과 정서적 지원의 근원이 되며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한편, 형제자매관계는 대인관계 기술과 사회적 기술, 언어기술, 갈등관리와 해결기술 그리고 사회적 지원망을 유지하는 기술발달에 영향을 미친다(Cicirelli, 1995)고 할 수 있다.

형제자매관계는 각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형성되어 일생동안 계속되는 관계이며, 다른 사회적 관계들이 변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지속되는 관계이다. 반면에 친구관계는 개인이 선택하는 관계이다. 이들 두 관계는 긍정적 관계맥락과 부정적 관계맥락을 동시에 지니는 양가적 특성을 갖는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온정적, 애정적, 지원적인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지만, 다른 형제자매들은 갈등적, 적대적, 공격적인 부정적 관계를 형성한다(Dunn, Slomkowski & Beardsall, 1994). 친구관계 역시 친밀성, 신뢰, 충성심 같은 긍정적 속성과 경쟁이나 갈등 같은 부정적 속성을 형성한다(Hartup, 1996). 온정이나 애정 같은 긍정적 차원과 갈등이나 경쟁 같은 부정적 차원을 포함하는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는 전생애에 걸

쳐 영향을 미친다(장휘숙, 2008; Brody, Stoneman, McCoy & Forehand, 1992; Pike & Atzaba-Poria, 2003; Stocker & McHale, 1992)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를 분리하여 다루거나 아동기(Berndt, 2002; Steelman, Powell, Werum & Carter, 2002; Parker & Asher, 1993)나 성인후기(Volkman, 2006; Dew, Llewellyn, & Balandin, 2004)를 주로 연구하였다.

한편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성별을 고려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형제자매를 더 가깝게 지각(Connidis, 2001)하기도 하는 반면, Stocker, Lanthier와 Furman(1997)은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보다 형제자매관계에서 갈등과 경쟁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장휘숙(2009) 역시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보다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Sherman, Lansford와 Volling(2006)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형제자매관계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운영과 장휘숙(2011)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큰 형제자매관계 온정을 경험하고 갈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하고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보다 더 적은 갈등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친구관계에서는 여자 아동과 청소년들이 남자 아동과 청소년들보다 더 온정적이고 친밀한 친구관계를 경험한다고 한다(Markovits,

Benenson, & Dolenszky, 2001; Parker & Asher, 1993).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운영과 장휘숙(2011)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친구관계에서 더 큰 온정을 경험하고 갈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보다 더 큰 갈등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여자 대학생들과 남자 대학생들의 친구관계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기도 한다(Catherine, et al., 2005; Caldwell & Peplau, 1982).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들은 행복과 자기존중감, 고독, 우울 등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Rowe와 Kahn(1998)은 빈약한 질적 관계는 불안, 우울, 신체적 허약, 고독 같은 부정적인 결과들과 연합된다고 보고하였다. 또래 집단으로의 수용과 고독 그리고 사회적 불만족을 연구한 Parker와 Asher(1993)는 친구와 친구 집단으로의 수용과 더불어 친구관계의 질은 아동의 고독을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생들의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를 동시에 다룬 Sherman과 동료들은(2006) 조화로운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를 가지는 개인들이 높은 자기존중감과 낮은 고독 점수를 나타내고, 형제자매관계의 갈등, 친구관계의 온정 그리고 갈등은 자기존중감과 고독 등의 심리적 안녕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Dykstra(1995)도 아동기와 청년기 뿐 아니라 노년기 역시 친구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와 관계의 질은 고독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는 전생애 동안 계속되는 사회적 관계로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삶에서 친밀한 관계망

의 결여나 관계에 대한 불만족과 부적응으로 인해 야기되는 고독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과 형제 자매관계 그리고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대개 아동기(Yeh & Lempers, 2004; Updegraff & Obeidallah, 1999; Parker & Asher, 1993)나 청년기(Sherman, et al., 2006; Stocker, et al., 1997) 및 노년기(Sherman, de Vries, & Lansford, 2000; Bedford, 1996; Gold, 1990; Adams & Blieszner, 1994)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성인초기와 성인 중기의 성인들은 자녀의 형제자매관계나 친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루어졌을 뿐(McCoy, Brody & Stoneman, 1994) 그 자신들의 형제자매관계나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성인기의 구분은 생물학적 성숙과 사회적 성숙 그리고 심리적 성숙의 초점에 맞춰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Levinson(1986)의 발달단계를 따라 성인기를 성인초기, 성인중기, 성인후기로 구분하고, Arnett(2000)의 연구에 기초하여 성인초기를 26세부터 45세까지, 성인중기를 46세부터 65세까지 그리고 성인후기를 66세부터 85세로 구분한 장휘숙(2006)의 발달단계로 연령을 구분하였다.

2010년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자 77세, 여자 88.8세이다. 기대수명의 증가는 과거보다 더 오랫동안 형제자매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평균 형제자매 수는 5.1명이지만, 이들의 평균자녀수는 1.9명(김용하, 임성은, 2011)으로 대폭 감소하여 형제자매관계의 상대적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형제자매관계를 포함하여 친

구관계와 고독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형제자매관계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친구관계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형제자매관계 및 친구관계가 고독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성인초기와 중기의 남녀 639명을 연구대상자로 표집을 하였다.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이므로 형제자매가 없는 사람들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였다. 최종분석 대상자는 성인초기 347명(남자: 169명, 여자: 178명)과 성인중기 292명(남자: 140명, 여자: 152명)이었다. 연구대상들의 평균연령은 성인초기 남자는 35.37세($SD=5.516$), 여자는 36.45($SD=5.080$)이고, 성인중기 남자는 52.67세($SD=4.551$), 여자는 51.64($SD=4.733$)이었다.

2. 측정도구

형제자매관계 척도

형제자매관계는 장휘숙(2009)이 개발하고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체 30 문항으로 온정과 갈등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온정차원의 문항은 18개(문항 예;

나는 나의 중요한 일을 형제자매에게 이야기 한다)이고, 갈등차원의 문항은 12개(문항 예: 나는 형제자매를 자주 비난한다)이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고, 온정차원에서의 높은 점수는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형제자매 관계를, 갈등차원에서의 높은 점수는 갈등적이고 부정적인 형제자매관계를 의미한다. Cronbach's α 로 계산한 온정요인의 내적일관성 계수는 .916이고 갈등요인은 .876이었다

친구관계 척도

친구관계는 장휘숙(2009)이 개발하고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형제자매 관계에서 형제자매 대신에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 척도는 온정요인 18문항(문항 예: 나는 나의 중요한 일을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과 갈등요인 12문항(문항 예: 나는 친구를 자주 비난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온정차원에서의 높은 점수는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갈등차원에서의 높은 점수는 갈등적이고 부정적인 친구관계를 의미한다. Cronbach's α 로 계산한 온정요인의 내적일관성 계수는 .931이고 갈등요인은 .895이었다

고독 척도

DiTommaso, Brannen와 Best(2004)가 개발한 15문항의 성인용 사회적, 정서적 고독 단축형 (SELSA-S)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고독, 낭만적 고독, 가족 고독의 3가지 하위차

원으로 구성되었다. 요인분석으로 요인부하량이 높은 문항들을 각 차원별로 선별하였다. 최종 문항은 사회적 고독 차원(문항 예: 나는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친구를 원하지만 그런 친구가 내게는 없다) 5문항, 낭만적 고독 차원(문항 예: 내 깊은 속마음을 함께 나눌 배우자나 이성친구가 있다) 3문항, 가족 고독 차원(문항 예: 나는 내 가족과 가깝다고 느낀다) 5문항이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많이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성인들이 사회적 고독과 낭만적 고독 그리고 가족 고독을 크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 α 로 계산한 내적일관성 계수는 사회적 고독 .804, 낭만적 고독 .897, 가족 고독 .846이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설문은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Y군과 D시에서 실시되었다. 통계분석을 위해 SPSS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 그리고 친구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 그리고 고독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가 고독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의 차이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남, 여)과 연령

집단(성인초기: 26-45세, 성인중기: 46-65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온정요인과 갈등요인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은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의 평균과 표준편

표 1.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형제자매 온정과 갈등의 사례수와 평균(표준편차)

성별	연령집단	N	온정	갈등
			평균(SD)	평균(SD)
남	성인초기	169	3.55(0.68)	1.78(0.64)
	성인중기	140	3.51(0.67)	1.67(0.66)
	전체	309	3.53(0.67)	1.73(0.65)
여	성인초기	178	3.78(0.68)	1.80(0.71)
	성인중기	152	3.74(0.69)	1.57(0.54)
	전체	330	3.76(0.68)	1.69(0.64)
전체	성인초기	347	3.67(0.69)	1.80(0.68)
	성인중기	292	3.63(0.69)	1.62(0.60)
	전체	639	3.65(0.69)	1.71(0.65)

표 2.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Eta squared
온정	성별	8.718	1	8.718	19.012***	.029
	연령집단	.252	1	.252	.550	.001
	성별*연령집단	.001	1	.001	.003	.000
	오차	291.190	635	.459		
	전체	8810.343	639			
갈등	성별	.314	1	.314	.761	.001
	연령집단	4.672	1	4.672	11.341**	.018
	성별*연령집단	.592	1	.592	1.437	.002
	오차	261.598	635			
	전체	2137.944	639			

* $p < .05$, ** $p < .01$, *** $p < .001$

차를 나타내고, 표 2는 변량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표 2에 의하면,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요인에서 성별의 주효과($F(1,635)=19.012, p<.01$)만 유의하였고, 연령집단의 주효과와 성별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형제자매관계에서 온정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요인에서 연령집단의 주효과($F(1,635)=11.341, p<.01$)만 유의하였고 성별의 주효과와 성별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성인초기 집단이 성인중기 집단보다 형제자매관계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2.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친구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의 차이

친구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남, 여)과 연령집단(성인초기: 26-45세, 성인중기: 46-65세)을 독립

변인으로, 온정요인과 갈등요인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친구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며, 표 4는 변량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표 4에 의하면 친구관계의 온정요인에서는 연령집단의 주효과($F(1,635)=4.888, p<.05$)만 유의하였다. 즉, 성인초기 집단이 성인중기 집단보다 친구관계에서 온정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친구관계의 갈등요인에서는 성별의 주효과($F(1,635)=6.637, p<.05$)와 연령집단의 주효과($F(1,635)=14.534, p<.001$)가 유의하였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친구관계에서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고, 성인초기 집단이 성인중기 집단보다 친구관계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3. 형제자매관계 및 친구관계와 고독의 관계

먼저 형제자매관계와 고독의 관계를 규명하

표 3.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친구관계의 온정과 갈등의 사례수와 평균(표준편차)

성별	연령집단	N	온정	갈등
			평균(SD)	평균(SD)
남	성인초기	169	3.56(0.66)	2.02(0.70)
	성인중기	140	3.47(0.63)	1.80(0.59)
	전체	309	3.52(0.64)	1.92(0.66)
여	성인초기	178	3.64(0.66)	1.86(0.70)
	성인중기	152	3.50(0.72)	1.68(0.62)
	전체	330	3.57(0.69)	1.78(0.67)
전체	성인초기	347	3.60(0.66)	1.94(0.71)
	성인중기	292	3.48(0.67)	1.73(0.61)
	전체	639	3.55(0.67)	1.84(0.67)

표 4.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친구관계의 온정과 갈등에 대한 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Eta squared
온정	성별	.427	1	.428	.963	.002
	연령집단	2.172	1	2.172	4.888*	.008
	성별*연령집단	.090	1	.090	.203	.000
	오차	282.105	635	.444		
	전체	8322.827	639			
갈등	성별	2.894	1	2.894	6.637*	.101
	연령집단	6.338	1	6.338	14.534***	.022
	성별*연령집단	.064	1	.064	.148	.000
	오차	276.924	635	.436		
	전체	2463.840	639			

* $p < .05$, ** $p < .01$, *** $p < .001$

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량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형제자매관계에서 성별과 연령집단을 구분하였으며,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인 초기 남성이 경험하는 형제자매관계 온정은 사회적 고독($r = -.327$, $p < .001$)과 낭만적 고독($r = -.380$, $p < .001$) 그리고 가족고독($r = -.519$,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성인초기 여성 역시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사회적($r = -.445$, $p < .001$), 낭만적($r = -.204$, $p < .01$) 그리고 가족고독($r = -.519$, $p < .001$)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성인초기의 남성과 여성 모두 형제자매관계가 온정적일수록 더 낮은 사회적 고독, 낭만적 고독 그리고 가족고독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성인초기 남성이 경험하는 형제자매관계 온정은 사회적 고독($r = -.327$, $p < .001$)과 낭만적 고독($r = -.380$, $p < .001$) 그리고 가족고

표 5. 형제자매관계와 고독사이의 상관

	형제자매 관계	남			여		
		사회적 고독	낭만적 고독	가족고독	사회적 고독	낭만적 고독	가족고독
성인초기	온정	-.327***	-.380***	-.519***	-.445***	-.204**	-.463***
	갈등	.169*	.150	.388***	.324***	.224**	.392***
성인중기	온정	-.287*	-.346***	-.416***	-.475***	-.295***	-.379***
	갈등	.137	.143	.250**	.323***	.136	.335***

* $p < .05$, ** $p < .01$, *** $p < .001$

독($r=-.519,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성인초기 여성도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사회적($r=-.445, p<.001$), 낭만적($r=-.204, p<.01$) 그리고 가족고독($r=-.519, p<.001$)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성인초기의 남성과 여성 모두 형제자매관계가 온정적일수록 더 낮은 사회적 고독, 낭만적 고독 그리고 가족고독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성인중기 남성이 경험하는 형제자매관계 온정 역시 사회적($r=-.287, p<.05$) 낭만적($r=-.346, p<.001$) 그리고 가족고독($r=-.416,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여성 또한 형제자매관계 온정과 사회적($r=-.475, p<.001$) 낭만적($r=-.295, p<.001$) 그리고 가족고독($r=-.379,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성인중기 남녀 모두 형제자매관계가 온정적일수록 더 낮은 사회적 고독과 낭만적 고독 그리고 가족고독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성인초기 남성이 경험하는 형제자매관계 갈등은 사회적 고독($r=.169, p<.05$) 및 가족고독과($r=.388, p<.001$)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성인초기 여성은 사회적 고독($r=.324, p<.001$)과 낭만적 고독($r=.224, p<.01$) 그리고

가족고독($r=.292,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성인초기 남성은 형제자매관계가 갈등적일수록 더 높은 사회적 고독과 가족고독을 경험하고 성인초기 여성은 형제자매관계가 갈등적일수록 더 높은 사회적, 낭만적, 가족고독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성인중기 남성이 경험하는 형제자매관계 갈등은 가족고독($r=.250,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성인중기 남성은 형제자매관계가 갈등적일수록 더 높은 가족고독을 경험하고 성인중기 여성은 형제자매관계가 갈등적일수록 더 높은 사회적 고독과 가족고독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친구관계와 고독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량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과 연령집단을 구분하였으며,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인초기 남성이 경험하는 친구관계 온정은 사회적 고독($r=-.714, p<.001$)과 낭만적 고독($r=-.174, p<.05$) 그리고 가족고독($r=-.367,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성인초기 여성 역시

표 6. 친구관계와 고독사이의 상관

	친구관계	남			여		
		사회적 고독	낭만적 고독	가족고독	사회적 고독	낭만적 고독	가족고독
성인초기	온정	-.714***	-.174*	-.367***	-.622***	-.290***	-.403***
	갈등	.161*	.170*	.272***	.376***	.121	.305***
성인중기	온정	-.464***	-.396***	-.335***	-.610***	-.369***	-.306***
	갈등	.123	.288**	.436***	.303***	.026*	.314***

* $p<.05$, ** $p<.01$, *** $p<.001$

친구관계의 온정과 사회적($r=-.622, p<.001$), 낭만적($r=-.290, p<.001$) 그리고 가족고독($r=-.403, p<.001$)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성인초기의 남성과 여성 모두 친구관계가 온정적일수록 더 낮은 사회적 고독, 낭만적 고독 그리고 가족고독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성인중기 남성이 경험하는 친구관계 온정 역시 사회적($r=-.464, p<.001$) 낭만적($r=-.396, p<.001$) 그리고 가족고독($r=-.335,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여성 또한 친구관계의 온정과 사회적($r=-.610, p<.001$) 낭만적($r=-.369, p<.001$) 그리고 가족고독($r=-.306,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성인중기 남녀 모두 친구관계가 온정적일수록 더 낮은 사회적 고독과 낭만적 고독 그리고 가족고독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성인중기 남성이 경험하는 친구관계 온정 역시 사회적($r=-.464, p<.001$) 낭만적($r=-.396, p<.001$) 그리고 가족고독($r=-.335,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여성도 친구관계의 온정과 사회적($r=-.610, p<.001$) 낭만적($r=-.369, p<.001$) 그리고 가족고독($r=-.306,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성인중기 남녀 모두 친구관계가 온정적일수록 더 낮은 사회적 고독과 낭만적 고독 그리고 가족고독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성인초기 남성이 경험하는 친구관계 갈등은 사회적 고독($r=.161, p<.05$)과 낭만적 고독($r=.170, p<.05$) 그리고 가족고독과($r=.272, p<.001$)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성인초기 여성은 사회적 고독($r=.376, p<.001$) 및 가족고독($r=.305,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

을 나타내었다. 즉 성인초기 남성은 친구관계가 갈등적일수록 더 높은 사회적 고독, 낭만적 고독 그리고 가족고독을 경험하고 성인초기 여성은 친구관계가 갈등적인 수록 더 높은 사회적 고독과 가족고독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성인중기 남성이 경험하는 친구관계 갈등은 낭만적 고독($r=.288, p<.01$) 그리고 가족고독($r=.272,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여성은 사회적 고독($r=.303, p<.001$), 낭만적 고독($r=.026, p<.05$) 그리고 가족고독($r=.31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성인중기 남성은 친구관계가 갈등적일수록 더 높은 낭만적 고독과 가족고독을 경험하고 성인중기 여성은 친구관계가 갈등적일수록 더 높은 사회적 고독과 낭만적 고독 및 가족고독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4.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가 고독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고독, 낭만적 고독 그리고 가족 고독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형제자매관계 및 친구관계와 고독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므로 성별과 연령집단을 분리하였으며,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부터 표 10과 같다.

표 7로부터 성인초기 남성들의 경우, 독립변인(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온정과 갈

표 7. 성인초기 남성의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td. Error	Beta	t	R ²
사회적 고독	형제자매관계 온정	-.054	.065	-.049	-.829	.530
	형제자매관계 갈등	.191	.078	.163	2.443*	
	친구관계 온정	-.798	.068	-.697	-11.658***	
	친구관계 갈등	-.073	.073	-.069	-1.008	
낭만적 고독	형제자매관계 온정	-.711	.145	-.381	-4.908***	.176
	형제자매관계 갈등	.130	.174	.066	.747	
	친구관계 온정	.011	.153	.006	.071	
	친구관계 갈등	.236	.162	.131	1.458	
가족고독	형제자매관계 온정	-.492	.070	-.449	-7.007***	.436
	형제자매관계 갈등	.402	.084	.348	4.766***	
	친구관계 온정	-.181	.074	-.160	-2.446	
	친구관계 갈등	.037	.079	.035	.474	

* $p < .05$, ** $p < .01$, *** $p < .001$

등)들은 사회적 고독에 대한 변량의 53.0%를 설명하며, 친구온정($\beta = -.697$, $p < .001$)과 형제자매갈등($\beta = .163$, $p < .05$)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낭만적 고독에 대한 변량의 17.6%를 설명하며, 형제자매온정($\beta = -.381$, $p < .001$)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가족고독에 대한 변량의 43.6%를 설명하며, 형제자매온정($\beta = -.449$, $p < .001$)과 형제자매 갈등($\beta = .348$, $p < .001$)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친구온정이 낮을수록 또는 형제자매 갈등이 높을수록 높은 사회적 고독을 경험하고, 형제자매 온정이 낮을수록 높은 낭만적 고독을 경험하며, 형제자매온정이 낮을수록 또는 형제자매 갈등이 높을수록 높은 가족고독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8로부터 성인초기 여성들의 경우, 독립

변인들은 사회적 고독에 대한 변량의 49.0%를 설명하며, 친구온정($\beta = -.500$, $p < .001$), 친구갈등($\beta = .219$, $p < .01$) 그리고 형제자매온정($\beta = -.178$, $p < .01$)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낭만적 고독에 대한 변량의 11.6%를 설명하며, 친구온정($\beta = -.234$, $p < .01$)과 형제자매갈등($\beta = .174$, $p < .05$)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가족고독에 대한 변량의 33.6%를 설명하며, 형제자매온정($\beta = -.289$, $p < .001$)과 친구온정($\beta = -.228$, $p < .01$) 그리고 형제자매 갈등($\beta = .216$, $p < .01$)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친구온정이 낮을수록 또는 친구갈등이 높을수록 또는 형제자매 온정이 낮을수록 높은 사회적 고독을 경험하고, 친구온정이 낮을수록 또는 형제자매 갈등이 높을수록 높은 낭만적 고독을 경험하며, 형제자매온정이 낮을수

표 8. 성인초기 여성의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가 고독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td. Error	Beta	t	R ²
사회적 고독	형제자매관계 온정	-.194	.067	-.178	-2.913**	.490
	형제자매관계 갈등	.005	.069	.053	.806	
	친구관계 온정	-.555	.066	-.500	-8.367***	
	친구관계 갈등	.229	.068	.219	3.379**	
낭만적 고독	형제자매관계 온정	-.108	.137	-.064	-.793	.116
	형제자매관계 갈등	.283	.141	.174	2.002*	
	친구관계 온정	-.405	.136	-.234	-2.975**	
	친구관계 갈등	-.047	.139	-.029	-.336	
가족고독	형제자매관계 온정	-.328	.079	-.289	-4.138***	.336
	형제자매관계 갈등	.233	.082	.216	2.858**	
	친구관계 온정	-.263	.079	-.228	-3.336**	
	친구관계 갈등	.093	.081	.085	1.147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성인중기 남성의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가 고독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td. Error	Beta	t	R ²
사회적 고독	형제자매관계 온정	-.021	.092	-.021	-.229	.236
	형제자매관계 갈등	.129	.096	.127	1.333	
	친구관계 온정	-.438	.097	-.453	-4.965***	
	친구관계 갈등	.025	.108	.022	.233	
낭만적 고독	형제자매관계 온정	-.215	.134	-.146	-1.606	.244
	형제자매관계 갈등	-.047	.140	-.032	-.334	
	친구관계 온정	-.468	.141	-.300	-3.312**	
	친구관계 갈등	.455	.157	.276	2.908*	
가족고독	형제자매관계 온정	-.308	.094	-.280	-3.294**	.342
	형제자매관계 갈등	-.014	.098	-.013	-.147	
	친구관계 온정	-.185	.099	-.158	-1.866	
	친구관계 갈등	.499	.110	.403	4.556***	

* $p < .05$, ** $p < .01$, *** $p < .001$

록 또는 친구온정이 낮을수록 또는 형제자매 갈등이 높을수록 높은 가족고독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9로부터 성인중기 남성들의 경우, 독립변인들은 사회적 고독에 대한 변량의 23.6%를 설명하며, 친구온정($\beta = -.453, p < .001$)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낭만적 고독에 대한 변량의 24.4%를 설명하며, 친구온정($\beta = -.300, p < .01$)과 친구갈등($\beta = .276, p < .05$)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낭만적 고독에 대한 변량의 24.4%를 설명하며, 친구온정($\beta = -.300, p < .01$)과 친구갈등($\beta = .276, p < .05$)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가족고독에 대한 변량의 34.2%를 설명하며, 친구갈등($\beta = .403, p < .001$)과 형제자매온정($\beta = -.280, p < .01$)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친구온정이 낮을수록 높은

사회적 고독을 경험하고, 친구온정이 낮을수록 또는 친구갈등이 높을수록 높은 낭만적 고독을 경험하며, 친구갈등이 높을수록 또는 형제자매온정이 낮을수록 높은 가족고독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0으로부터 성인중기 여성들의 경우에, 독립변인들은 사회적 고독에 대한 변량의 44.4%를 설명하며, 친구온정($\beta = -.480, p < .001$)과 형제자매온정($\beta = -.177, p < .05$)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낭만적 고독에 대한 변량의 16.0%를 설명하며, 친구온정($\beta = -.288, p < .01$)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가족고독에 대한 변량의 22.5%를 설명하며, 형제자매온정($\beta = -.234, p < .01$)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친구온정이 낮을수록 또는 형제자매 온정이 낮을수록 높은 사회

표 10. 성인중기 여성의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가 고독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td. Error	Beta	t	R ²
사회적 고독	형제자매관계 온정	-.189	.078	-.177	-2.429*	.444
	형제자매관계 갈등	.191	.108	.139	1.773	
	친구관계 온정	-.495	.074	-.480	-6.726***	
	친구관계 갈등	.088	.093	.074	.947	
낭만적 고독	형제자매관계 온정	-.216	.150	-.129	-1.442	.160
	형제자매관계 갈등	-.026	.208	-.012	-.126	
	친구관계 온정	-.464	.141	-.288	-3.280**	
	친구관계 갈등	.178	.179	.095	.991	
가족고독	형제자매관계 온정	-.261	.096	-.234	-2.719**	.225
	형제자매관계 갈등	.250	.133	.174	1.878	
	친구관계 온정	-.141	.091	-.132	-1.561	
	친구관계 갈등	.148	.115	.119	1.290	

* $p < .05$, ** $p < .01$, *** $p < .001$

적 고독을 경험하고, 친구온정이 낮을수록 높은 낭만적 고독을 경험하며, 형제자매온정이 낮을수록 높은 가족고독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성인초기와 성인중기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은 사회적 고독, 낭만적 고독 그리고 가족고독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사회적 고독, 낭만적 고독 그리고 가족고독은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 중 어느 변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요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온정을 경험하였고, 연령집단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요인에서는 성차는 없었으나 성인초기의 사람들이 성인중기의 사람들 보다 더 큰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의 온정요인에서 성차는 없었으나 성인초기의 사람들이 성인중기의 사람들보다 더 큰 온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의 갈등요인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큰 갈등을 경험하고, 성인초기의 사람들이 성인중기의 사람들보다 더 큰 갈등을 경험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하고 갈등에서는 성차가 없다는 결과는 19세부터 50세까지의 성인들을 연구대상자로 한 Spitz와 Trent(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성들이 가족 연결망의 조직과 유지

역할을 한다는 Eriksen과 Gerstel (2002)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형제자매관계 온정에서 연령집단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갈등에서의 차이는 형제자매관계의 질적 특성이 연령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친구관계의 온정요인에서의 성차의 부재와 갈등요인에서의 유의한 성차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연구대상자로 한 연구들(이운영, 장휘숙, 2011; 한현아, 도현심, 2008; Parker & Asher, 1993),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Catherine, et al., 2005; Caldwell & Peplau, 1982)과 상이한 결과다. 하지만 성인초기의 사람들이 성인중기의 사람들보다 더 큰 친구관계 온정과 갈등을 경험한다는 결과는 성인초기가 그 어떤 시기보다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친구관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Rawlins(1992)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친구관계의 질적 특성 또한 연령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며, 종단연구를 통하여 전생애 동안의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의 변화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고독, 낭만적 고독 그리고 가족고독에 미치는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각 차원들은 성인초기와 성인중기의 남성과 여성 각각에서 사회적 고독과 낭만적 고독 및 가족고독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설명량을 보였다. 이는 사회적 연결망의 질과 고독의 강한 상관을 주장한 Pinquart과 Sorenson (2001)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가 아동기와 청년기 뿐 아니라 전생애에 걸쳐 긍정적인 사회화의 중요한 자원(Bedford, 1996; Cicirelli, 1995; Hartup & Stevens,

1997)이 됨을 일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는 고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온정적인 친구관계는 낮은 수준의 사회적 고독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herman과 동료들(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친구관계의 질이 사회적 고독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낭만적 고독과 가족고독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에 있어서의 차이들은 고독의 구성개념이 다차원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며, 연령에 따라 고독의 양상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 및 고독은 전생애 동안 지속되고 경험되며, 관계의 질과 개인의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과 함께 성인후기는 물론 아동기나 청년기까지 포함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성인초기와 성인중기를 횡단적으로 비교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아동기와 노년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성인초기와 중기의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고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용하, 임성은 (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31(2), 36-59.

이운영, 장휘숙 (2011). 아동과 청소년의 형제

자매관계 및 친구관계와 5요인 성격특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4), 1-18.

장휘숙 (2006). 성인심리학. 박영사.

장휘숙 (2008). 기질과 애착이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69-87.

장휘숙 (2009). 대학생의 형제자매관계와 성격 특성 및 정신병리적 증상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33-48.

한현아, 도현심 (2008). 가정의 위험요인,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1), 87-101.

Adams, R. G., & Blieszner, R. (1994). An integrative conceptual framework for friendship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163-184.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Bedford, V. H. (1996). Relationships between adult siblings. In A. E. Auhagen(Ed.), & M. von Salisch (Eds.), *The diversity of human relationships* (pp.120-14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rndt, T. J. (2002). Friendship quality and social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1, 7-10.

Brody, G. H., Stoneman, Z., McCoy, J. K., & Forehand, R. (1992). Contemporaneous and longitudinal associations of sibling conflict with family relationship assessments and family

- discussions about sibling problems. *Child Development*, 63, 391-400.
- Caldwell, M. A., & Peplau, L. A. (1982). Sex differences in same-sex friendship. *Sex Roles*, 8, 721-732.
- Catherine, L. B., Sarah E. B., Cristina, L. A., Tracy, L. K., Staci, A. M., & Jason, G. M. (2005). Friendship quality and perceived relationship changes predict psychosocial adjustment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2(2), 235-254.
- Cicirelli, V. G. (1995). *Sibling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span*. New York: Plenum Press.
- Connidis, I. A. (2001). *Family ties and aging*. Thousand Oaks, CA: Sage.
- Cramer, K. M., & Barry, J. E. (1999). Conceptualizations and measures of loneliness: A comparison of subsca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3), 491-502.
- Dew, A., Llewellyn, G., & Balandin, S. (2004). Post-parental care: A new generation of sibling-carers. *Journal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29, 176-179.
- DiTommaso, E., Brannen, C., & Best, L. A. (2004). Measurement and validity characteristics of the short version of the social and emotional loneliness scale for adult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4(1), 99-119.
- DiTommaso, E., & Spinner, B. (1993).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Social and Emotional Loneliness Scale for Adults (SELSA).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127-134.
- Dunn, J., Slomkowski, C., & Beardsall, L. (1994). Sibling relationships from the preschool period through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0(3), 315-324.
- Dykstra, P. (1995) Loneliness among the Never and Formerly Married: The Importance of Supportive Friendships and a Desire for Independence.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0B, S321-S329
- Eriksen, S., & Gerstel, N. (2002). A labor of love or labor itself: Care work among adult brothers and sister. *Journal of Family Issues*, 23, 836-856.
- Gierveld, J. (1987). Developing and testing a model of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09-113.
- Gierveld, J., & Havens, B. (2004). Cross national comparisons of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introduction and overview. *Canadian Journal on Aging / Revue Canadienne du Vieillessement*, 23, 109-113.
- Gold, D. T. (1990). Late life sibling relationships: Dose race affect typological distribution? *The Gerontologist*, 30, 741-748.
- Hartup, W. W. (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 1-13.
- Hartup, W. W., & Stevens, N. (1997). Friendships and adaptation in the life course. *Psychological Bulletin*, 121, 355-370.
- Levinson, D. J. (1986). A conception of adult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1, 3-13.

- Markovits, H., Benenson, J., & Dolenszky, E. (2001). Evidence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have internal models of peer interactions that are gender differentiated. *Child Development*, 72, 879-886.
- McCoy, J. K., Brody, G. H., & Stoneman, Z. (1994). A longitudinal analysis of sibling relationships as mediators of the link between family processes and youth's best friendship. *Family Relations*, 43, 400-408.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Pike, A., & Atzaba-Poria, N. (2003). Do sibling and friend relationships share the same temperamental origins? A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4(40), 598-611.
- Pinquart, M., & Sorenson, S. (2001). Influences on loneliness in older adult: A meta analysi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3(4), 245-266.
- Rawlines, W. K. (1992). *Friendship matter: Communication, dialectics, and the life cours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Rowe, J. W., & Kahn, R. L.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 Rubin, K. H., Bukowski, W., & Parker, J. G. (1998).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W. Damon (Editor-in-Chief)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New York: Wiley.
-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 Shaver, P. R., & Brennan, K. A. (1991). *Measures of depression and loneliness*.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herman, A. M., de Vries, B., & Lansford, J. E. (2000).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ulthood: Lessons across the life spa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1, 31-51.
- Sherman, A. M., Lansford, J. E., Volling, B. L. (2006). Sibling relationship and best friendship in young adulthood: warmth, conflict, and well-being. *Personal Relationships*, 13, 151-165.
- Spitze, G., & Trent, K. (2006). Gender differences in adult sibling relations in two-child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 977-992.
- Steelman, L. C., Powell, B., Werum, R., & Carter, S. (2002). Reconsidering the effects of sibling configuration: Recent advances and challeng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8, 243-269.
- Stocker, C., & McHale, S. (1992). The nature and family correlates of pre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sibl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9, 180-195.
- Stocker, C. M., Lanthier, R. P., & Furman, W. (1997). Sibling relationships in early adulthood.

-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2), 210-221.
- Updegraff, K. A., & Obeidallah, D. A. (1999). Young adolescent' patterns of involvement with siblings and friends. *Social Development*, 8, 52-69.
- Volkom, M. V. (2006). Sibling relationships in middle and older adulthood: A review of the literature. *Marriage and Family Review*, 40(2/3), 151-170.
- Weiss, R. S. (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Weiss, R. S. (1998). A taxonomy of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Relationships*, 15, 671-683.
- Yeh, H. C., & Lempers, J. D. (2004). Perceived sibling relationships and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 133-147.
- 1 차원고접수 : 2012. 4. 7
수정원고접수 : 2012. 5. 10
최종게재결정 : 2012. 5. 30

The Effects of Sibling Relationships and Relationships with Friends on Loneliness

Woon-Yeong Lee

Dep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ibling relationships and relationships with friends on loneliness amongst young and middle aged adults. The results reveal that women have more warmth with siblings than men and young adults experienced more conflict than middle aged adults. In addition, men experienced more conflict with friends than women and young adults had more warmth and experienced more conflict than middle aged adults. The warmth of both siblings and friends correlated negatively with social, romantic and family loneliness and patterns of conflict appeared somewhat different in young and middle aged adults. Relationships with friends had greater effects on social loneliness than romantic and family loneliness, and sibling relationships had greater effects on family loneliness than other forms of loneliness. Additionally, sibling relationships among young adult males had greater effects on romantic loneliness than other forms of loneliness, and among young adult females, relationships with siblings and friends had greater effects on romantic loneliness than romantic and family loneliness. Relationships with friends among middle aged adults had greater effects on romantic loneliness than other forms.

Key words : sibling relationship, friend relationship, warmth, conflict, loneliness